3GPP RAN1(물리계층) 작업반 의장(삼성전자) 신규 진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자회의로 개최된 3GPP RAN1(물리계층) 제105차 국제회의에서 삼성전자 김윤선 마스터가 의장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의장으로 선출된 김윤선 마스터는 2017년부터 RAN1 부의장을 수임하면서 MIMO, eMTC(enhanced Machine Type Communication), NR power control, IAB(Integrated Access Backhaul), DSS(Dynamic spectrum sharing) 분야 등 5G 핵심 기술에 대한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3GPP 5G 표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 받았다.

김 의장은 제106차 RAN1 회의(2021.8)부터 2년 동안 의장 역할을 할 예정으로, 5G-Advanced로 고려되는 Release 18 표준화를 직접 주도함으로써 5G 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TTA 최영해 회장은 "우리나라 산업계가 3GPP 내에서도 기술경쟁이 가장 치열한 물리계층 분야 리더십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5G 진화 표준화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였다"고 평가하며, "TTA는 3GPP 운영기관으로서 3GPP 주요 국제회의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는 등 국내 산업계의 3GPP 표준화 참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능형 사물인터넷 oneM2M 해커톤 개최

TTA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사무총장 Luis Jorge Romero Saro, 이하 ETSI),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이하 세종대)와 공동으로 지능형 사물인터넷 oneM2M 해커톤을 개최했다.

TTA와 ETSI는 oneM2M의 활성화를 위해 세종대에서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해커톤을 개최하고, 특히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해커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InDiCo project, ETSI, 세종대 자율지능 무인비행체 연구소, 세종대 BK21 지능형드론 교육연구단은 해커톤 장소 대관과 같은 행사준비를 지원했으며, TTA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원장 김영삼)은 글로벌융합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H/W개발 키트와 표준전문가를 참가팀에게 지원했다.

또한, 약 32개팀이 이번 해커톤에 참여했으며, 참가팀 중 oneM2M 플랫폼을 활용하여 우수한 IoT솔루션을 개발한 11개 팀을 선별하여 시상했다. TTA 최영해 회장은 "정부과제로 개발되고 있는 e-IoT(에너지 분야)와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에서 oneM2M은 IoT기술의 핵심플랫폼표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oneM2M의 국내외 활성화를 위해 oneM2M 기술 교육, 표준개발 및 시험·검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강조했다.

TTA, 2021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참석

ICT R&D 연구성과 전시·홍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교류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2021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이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개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이 공동 주관한 이 행사에서 TTA는 8개 부스를 확보하여 ㈜와임 등 표준자문을 받은 업체와, ㈜아이티텔레콤 등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했다.

4월 21일 개최되 개막식에서 TTA의 이혜진 책임연구원은 ICT R&D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이 인정이 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또한 4월 22일 본무대에서는 표준진흥단 장종표단장이 '중소중견기업 ICT 표준 및 시험인증지원서비스 성공사례'를 주제로 발표하여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2021년 WIS(WORLD IT SHOW)와 함께 개최된 이 행사에서는 5G, AI, 융합서비스의 3개 테마로 구성되어 진행됐으며, 총 81개 업체가 참여하여 104개의 전시품목이 소개됐다.

TTA-ETSI, 스마트 사회 구현을 위한 표준협력을 모색한다

TTA는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인 ETSI와 함께 '스마트시티와 IoT 보안을 위한 표준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유럽 IoT 워크숍(Korea-EU Workshop on IoT)'을 개최했다. 본 행사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TTA-ETSI 국제공동워크숍에서 ICT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 사회 구현을 위한 표준협력 방안, 특히, 스마트시티, 컨슈머 IoT를 포함한 사물인터넷 보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TTA는 유럽의 ICT 분야 표준화를 담당하는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사무총장 Luis Jorge Romero, 이하 ETSI)와 2019년 말부터 유럽에서 추진 중인 표준화를 포함한 ICT 분야 협력 프로그램, 인디코 프로젝트(InDiCo Project)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표준화 분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21일엔 TTA의 구경철 본부장의 개회사를 통해 TTA-ETSI간 ICT 표준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CT 융합의 대표적 분야인 스마트시티 관련 양국의 정책과 추진현황 공유를 통해 구체적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조대연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 한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로드맵,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정승명 선임이 실제 스마트시티 구현 사례를 소개하며, 유럽에서도 독일의 함부르크 스마트시티 구축을 실증사례를 소개했다.

22일엔 ETSI의 Luis Jorge Romero 사무총장 인사말과 함께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 되는 컨슈머 IoT 중심의 IoT 보안을 주제로 세션을 이어갔다. 우리나라에서는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상걸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한국의 사이버 보안 표준현황 등을 공유하고, 한국과 유럽의 IoT 보안의 표준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TTA 최영해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TTA)-유럽(ETSI)간 ICT 표준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6월 초에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6G 국제협력을 위해 'Beyond 5G Vision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TTA-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5G 혁신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MoU 체결

TTA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신현삼, 이하 경기혁신센터)와 손잡고 5G 시험인프라 활용을 통한 맞춤형 고객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혁신기업 성장 촉진에 앞장서기로 했다.

TTA는 지난 5월 3일, '5G 밀리미터파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스타트업·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기혁신센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5G 단말시장 성장과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국내 혁신기업의 시험인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기업지원 인프라(시설활용, 시험인증, 기술 컨설팅 제공 등)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TT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단말의 국제공인시험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5G 단말에 대한 해외수출을 지원 목적으로 5G FR1(3.5GHz) 및 FR2(28GHz) 시험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공인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TTA는 5G 국제공인 시험인프라를 기반으로 ▲ 5G 국제공인(GCF, PTCRB 등) 시험인증 지원, ▲ 5G 기술 컨설팅 및 제품 개발 지원 등으로 제품의 신뢰성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으며, 경기혁신센터는 ▲ 5G 밀리미터파 테스트베드를 통한 망연동 시험지원, ▲ 5G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공 등 실증환경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기업 성장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TTA 최영해 회장은 "TTA의 5G 국제공인 시험인프라와 경기혁신센터의 밀리미터파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5G 기술 혁신기업에 보다 체계적인 시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5G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